

## 한국 여자오픈 '퀸' 유소연, 4세대 카니발 탄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입력 : 2020.08.21 10:09



기아자동차는 20일 압구정 사옥에서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 챔피언 유소연 선수에게 부상으로 4세대 카니발을 증정했다.

유 선수는 지난 6월 열린 대회에서 김효주 선수의 집요한 추격을 1타차로 뿌리치며 생애 다섯 번째 내셔널타이틀을 차지했다.

유 선수는 “꿈에 그리던 한국 내셔널타이틀 트로피를 획득한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생애 다섯 번째 내셔널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 우승도 기쁘는데, 부상으로 차량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4세대 카니발은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모델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미니밴이다.

지난 18일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사전 계약 기간 14일 동안에만 3만200여대 계약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총 5개국의 내셔널 타이틀을 차지한 유 선수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코로나 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감동적인 경기를 만들어준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9년간 한국여자오픈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기아차는 꾸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한국여자오픈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FIFA 월드컵, UEFA 유로파리그, NBA, 호주오픈 테니스, 리그 오브 레전드 등도 후원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